



견우와 직녀가 만나듯 남북의 음악이 어우러질 국립국악원 광복 60주년 맞이 '한민족 아리랑 음악회'.

사진제공=국립국악원

은하수 길어 차밭이고

오작교 건너 님맞이

칠월칠석맞이 문화행사 풍성

일 년에 한번, 까막까지가 놓은 오작교를 밟아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그 날이 다가온다. 칠월칠석, 우리민족은 예로부터 칠월칠석 날 북두칠성에 가족의 무병장수를 기원해왔다. 정한수를 떠다놓고 빌던 풍습은 오늘날 사라졌지만, 견우와 직녀의 애절한 전설을 되살려 칠석을 '연인의 날'로 부르고 있다. 칠월칠석이 상업주의에 물든 서양의 발렌타인데이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양력으로 8월 11일, 가족과 함께 손잡고 칠석맞이 행사에 참석해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느끼고 건강과 화복도 기원해보는 것은 어떨까.

▶ 국립국악원 광복60주년맞이 '한민족 아리랑 음악회'

헤어졌던 견우와 직녀가 1년에 단 하루 애뜻하게 만난다는 '칠월칠석', 아리랑을 공통분모로 남과 북의 음악이 만난다. 국립국악원은 8월 11일 국립국악원 별맞이에서 광복60주년 기념 국립국악원 칠석 절기공연으로 '무료 한민족아리랑 음악회'를 열고 남북의 아리랑 관현악곡과 노래를 들려준다.

남측의 아리랑으로는 백대웅 작곡의 '남도아리랑' 강상구 작곡의 '아리랑을 위한 코리아 환타지' 등이 발표되며 북측의 아리랑으로는 일본에서 활동 중인 리한우 작 '경상도 아리랑' 황진철 작 '서도 아리랑' 등이 창작악단의 선율로 수놓아진다. 중국 연변에서 활동하는 성악가 박연의 '새연변 아리랑' '영원 아리랑' 등도 감상할 수 있다. 국립국악원은 "이번 공연을 통해 우리민족 고유의 세시풍속을 알리고 전통문화예술축제로서의 의의와 기능을 계승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02)580-3300

▶ 문경다래원 칠석차문화제

예로부터 차인들은 칠월칠석 은하수에 흐르는 물을 천일수(天一水)로 부르며 이상적인 차물로 여겼다. 고려 때 차승(茶僧)으로 유명한 진각국사는 "... 북두칠성 국자로 은하수를 길어 달이는 한방의 차, 차 얻기는 싸늘하게 계수나무를 감싸네(斗酌星河煮夜茶 茶煙冷鎖月中桂)"라고 노래한 바 있다.

이렇게 차인들이 각별하게 여겨온 칠석날에는 차를 올려 칠석제를 지내는 전통이 있었는데 문경다래원에서는 이 같은 전통을 복원 시키고자 지역과 연계해 매년 칠석다래제를 열고 있다. 8월 13일 오후 5시부터 문경새재 야외공연장에서 문경다래원이 주관하고 문경시, 문경도자기협회, 한국차인연합회, 예술국악회 등이 후원하는 행사가 열린다. 가배틀기, 칠석다래, 다완·다관풍령 및 다도구 전시, 견우 직녀 선반, 칠석소원등달기, 무형문화재 특별전 등의 다채로운 행사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054)553-9876

▶ 부산 동다송문화회 칠석다래제

(사)동다송문화회는 8월 11일 부산 흥법사에서 '제9회 칠석다래제'를 갖는다. 이날 다래제에서는 정수다인문화회 시상식도 겸하며 다래시연, 상록합창단의 합창공연 등이 이어진다.



지난해 부산 삼광사에서 열렸던 칠석예제제의 견우와 직녀.

사진제공=부산 삼광사

매년 칠석다래제를 개최해왔던 동다송문화회는 "칠석을 맞이해 부산 APEC정상회의 성공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이 같은 행사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017-560-0785

▶ 부산 삼광사 칠석예제제

부산 삼광사는 8월 9일 경내에 오작교도 설치하고 성대한 '칠석예제제'를 개최한다. 불자들이 색동등, 팔각등, 전통모형등을 들고 오작교를 건너 부처님께 헌정하면 예술제가 시작된다. 창작무용 '견우와 직녀', 삼광사 화엄합창단의 합창공연 등이 이어지며 화향식에는 불꽃놀이도 펼쳐진다. (051) 808-7111

▶ 떡부엌살림박물관 칠월칠석 음식 만들기

(사)한국전통음식연구소와 떡부엌살림박물관에서는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통음식만들기-칠월칠석'을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칠석에 먹는 전통음식인 백설기와 편수를 만들고 칠월칠석에 관련된 세시풍속을 배울 수 있다. 또 떡부엌살림박물관을 무료로 관람한다. www.tkmuseum.or.kr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5천원, 선착순 마감. (02)741-5447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계시판

해인사 장경판전 여름철 개방시간 확대 협천 해인사는 여름방학 및 휴가철을 맞이해 8월 말까지 장경각 개방시간을 오전 8~11시, 낮 12~오후 6시 30분까지 확대 운영한다. (055)934-3161



제17기 불교귀농학교 모집 인드라망 생명공동체는 귀농을 꿈꾸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17기 불교귀농학교 수강생(사진)을 모집하고 있다. 9월 6일~11월 25일 일주일에 두 번씩 현장학습과 버 배기 실습, 도시텃밭 가꾸기 등을 배울 수 있다. 수강료는 10만원이다. (02)576-1886

아자학교 쌍륙대회 대한가족생활연구원 아자학교가 8월 15일 육천군남초등학교에서 전통 놀이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쌍륙대회를 개최한다. 쌍륙과 참고누, 아자학교 자체개발 불경카드도 겨루며, 참가자에게는 새로 개발된 놀이 세트도 제공된다. 011-9240-6007

구로청소년수련관 가족영화상영 서울시립 구로청소년수련관은 27일 수련관 내에서 은 가족이 볼 수 있는 가족영화를 상영하고 참가 가족사진을 촬영해준다. (02)838-1318

입문자 기초교리 강좌 서울 수효사는 8월 12일부터 사찰 신규입문자를 대상으로 기초교리 강좌를 실시한다. 매주 금요일 열리며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된다. (02)313-2398

20면 상식 퍼즐 정답

해	왕	성	검		
수	군	맹	무	상	
욕		호		사	
장	인			병	서
공	혈			방	
위	임	통	치	정	
견	성		부	식	토

48시간 살인사건 취조실 실황중계

박수철 때 떠나라 감독: 장진 출연: 차승원, 신하균 상영시간: 115분 등급: 15세 이상

90년대 초반 주말 버라이어티쇼의 대명사 '토토'를 보던 시청자들은 뉴스속보와 보고 화들짝 놀란다. 그것도 5분을 넘지 않는 뉴스속보의 불문율을 깨고 무려 48시간 동안 살인사건 취조실 실황중계... 케네디 대통령의 진범이라도 잡았다 말인가? 아니다. 바로 영화 '박수철 때 떠나라'의 영화적 기법이다. 이 영화는 장진 감독이 1999년에 집필하고 2000년에 연극 무대에 올랐던 '박수철 때 떠나라'를 스크린으로 옮겨놓았다. '간첩 리철진' '아는 여자' 등을 통해 자기만의 스타일을 확고히 설정해 둔 장감독 특유의 '종합선물세트'식 스토리 구성이 일관. 어떻게 보면 시추이션 코미디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스릴러적 공포와 함께 판타지적 요소까지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중심가의 특급 호텔 1207호에 투숙한 미모의 카피라이터 정유정은 의문의 살인을 당한다. 목격자도 증거도 없다. 수사진은 호텔 벨보이, 지배인, 영방 1206호에 투숙 한 커플 등 여러 증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며 사건 실체에 접근해 간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유일한 용의자 김영훈이 심증 100% 살인용의자로 주목받는다. 불잡힌 김영훈에 대해 최연기 검사팀은 반전과 반전이 얽힌 48시간 동안의 수사를 전국에 생중계하는데... 코미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도 범인을 향해 분노의 심기를 표출하는 물오른 차승원의 연기가 불만하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온가족 탁본 뜨고 템플스테이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무료행사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숲 속의 판화학교'를 연다. 8월 6~28일 1박 2일씩 총 8회 실시되는 이번 판화학교는 전액 무료이며 초등학생 및 중학생이 있는 4인 가족을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



탁본을 뜨고 있는 참가가족들.

행사 기간 동안에는 직접 탁본을 뜨며 판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고 다도와 명상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산사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어 템플스테이와 문화체험을 함께 할 수 있다.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은 2,500여점의 목판원판과 판화로 만든 서책 300여점, 판화 700여점을 소장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전문 고판화박물관이다. 박물관 측은 "국내 박물관으로는 최초로 사회문화예술교육기관으로 선정돼 이번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됐다"며 "우리나라 고미술의 미개척 분야인 고판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033)761-7885

공연

어린이 영어 뮤지컬 '까이유'

삼성동 코엑스, 8월 24일까지

"어린이 여러분~ '까이유'와 함께 영어공부 배워보아요"



영어로 공연되는 어린이 뮤지컬 '까이유'.

여름방학을 맞아 서울 삼성동 코엑스는 그랜드컨퍼런스룸에서 8월 4일~24일 어린이 뮤지컬 '까이유'를 공연한다. 까이유는 전세계 75개국에서 수백만 부가 팔린 인기 동화책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캐나다 배우들이 직접 내한해 영어로 공연하는 '까이유'는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돼 세계적인 인기를 모았던 작품이기도 하다. 네 살 꼬마 까이유와 가족, 친구들의 이야기를 아이들의 시각에 맞춰 재미있게 구성했다.

영어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부모나 초등학생들이 보기에 가장 적합하다. (02)6000-8140 노병철 기자

방송 프로그램

8월 06:00 불교강좌	8월 06:25 오늘은 좋은 날	8월 06:50 한국의 명찰	8월 07:05 아침저널	8월 07:15 11:30 산중대담	8월 07:25 명상음악산책	8월 07:45 불교TV메디컬	8월 08:00 또 다른 수행 '사경'
9월 11:05 아름다운 초대	9월 11:05 아침저널	9월 11:05 아침저널	9월 11:05 아침저널	9월 11:05 아침저널	9월 11:05 아침저널	9월 11:05 아침저널	9월 11:05 아침저널

하이라이트

- 불교방송: 전지문의 낭만라디오(8월 13일 14:05~15:00) 3040세대들의 입맛에 맞는 추억의 노래를 다시 들어 볼 수 있는 시간. 나른함이 밀려오는 오후 2시, 전지문이 준비한 잔잔한 노래와 선율은 지친 당신의 마음을 감싸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
- 불교텔레비전: 영연관 장미희의 행복충전(8월 14일 21:45~22:45) 연애계의 입담꾼으로 통하는 영연관 장미희가 말하는 세상사는 이야기. 불자 연예인 등 각계 인사를 스튜디오에 초청해 삶의 지혜는 물론 생활속 재미있는 해프닝도 소개한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반아심경 손목시계

마하몰이 홈페이지 리뉴얼 기념으로 반아심경 불자고급손목시계를 55,000원의 특별할인 가격에 내놓았다. 시계판에는 큐빅 13피스와 6시, 12시를 제외한 시간마다 '마하반아심경' 글자를 새겨서 언제 어디서나 불심을 되새기도록 도와준다. 스위스 톤다사의 부속품이 내장됐고 3기압 방수처리 된 불자고급손목시계는 500개 한정으로 판매한다.